신뢰로 여는 통합의 창 KBS

KBS사보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Vol. 744



김신영과 함께 "딩동댕동!" "전국~ 노래자랑~~"



MC도, 출연자도, 객석도 즐거운 축제 한마당

〈전국노래자랑〉은 1980년 11월 9일 시작해 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
그 가운데 34년(1988~2022년)간 MC를 맡았던 '일요일의 남자' 송해 선생이 지난 6월 타계한 이후 한동안 공석이었던 후임 자리에 코미디언 김신영이 깜짝 발탁됐다. 이후 김신영은 '국민 MC' 유재석을 제치고 예능인 브랜드평판 1위(9월)에 오르는 등 세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달 경기도 하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겸한 공개 녹화 현장에는 주말임에도 40여 매체가 참석해 뜨거운 취재 경쟁을 펼쳤다.





양희은부터 브레이브걸스까지… 역대급 축하 무대로 현장 분위기 UP!

9월 17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 녹화 현장. 오프닝에 앞서 가수 양희은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른 뒤 MC 김신영을 소개했다. 깔끔한 블랙 수트에 보타이를 맨 김신영은 관객들의 환호 속에 무대에 올라 양희은과 '행복의 나라'를 열창하며 한껏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양희은은 52년 차 가수지만 〈전국노래자랑〉에 처음 출연하는 소감과 함께 MC를 맡은 김신영에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진행하라"라며 축하와 격려의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귀에 익은 실로폰 소리에 맞춰 김신영의 "전국~ 노래자랑~~!" 오프닝 멘트가 울려 퍼졌다.

이날 〈전국노래자랑〉의 새 안방마님 김신영을 응원하기 위해 개그우먼 송은이, 가수 에일리와 박현빈, 나비, 브레이브걸스 등이 총출동해 화려한 축하 무대를 만들었다. 김신영은 특유의 넉살스러움으로 출연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등 베테랑다운 진행 솜씨를 선보였다.

KBS, 김신영의 오랜 방송 경험과 친화력 높이 평가

〈전국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송해 선생이 장기간 진행해온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인 만큼 후임 MC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가 높았다. 내로라하는 중년 남성 MC들이 후보군으로 언급되기도 했지만, 제작진의 선택은 김신영이었다. 의외였지만 '신박'하고 '찰떡'이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코미디언으로서 오랜 기간 갈고 닦은 순발력과 유쾌한 입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보여준 안정된 진행 능력과 성실성, 그리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전천후 엔터테이너로서의 끼와 능력을 보여준 김신영이기에 많은 시청자들은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공연 녹화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현아 예능센터장은 "송해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후임 MC를 선정하는 일이 KBS 전체의 큰 숙제여서 마음이 무거웠다"라며, "많은 후보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라디오 진행을 통해 보여준 가요계에 대한 지식, 희극인으로서의 친화력 면에서 김신영 씨가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상미 CP는 "〈전국노래자랑〉을 보시면 김신영 씨가 딱 맞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이라며 김신영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녹화 현장의 뜨거운 열기는 ***10월 16일(일)*** KBS 1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매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1

I·N·T·E·R·V·I·E·W

〈전국노래자랑〉 새 MC로 발탁된 김신영 씨에게 소감을 들어봤다.



Q 〈전국노래자랑〉 MC가 된 후 가장 큰 변화는?

정말 축하를 많이 받아서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구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 같아요.

Q (故 송해 선생님의 빈자리가 부담이 클 거 같은데…) 김신영 표 〈전국노래자랑〉의 자랑할 만한 점과 첫 방송을 앞둔 심정은?

아직까진 자랑할만한 점보다는 적응기라고 생각해요. 스며드는 중이랄까요. 그 어떤 프로그램의 첫 방송보다 설레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Q 여러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본캐'와 '부캐'로 활발히 활동해 오셨는데, 김신영 씨에게 KBS란?

저에게 기회를 준 방송국이에요. 늘 처음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처음 코미디언 시험을 봤던 곳이고, 예능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고정 출연자가 됐구요. 〈스타 골든벨〉에서 '모팔모'(드라마 '주몽' 등장 인물 / 이계인 분) 성대모사가 시작되었고, 〈청춘불패〉로 신인 예능상을 받았고, 감사한 방송국이에요. 처음 기획했던 〈빼고파〉처럼 늘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만큼 오래오래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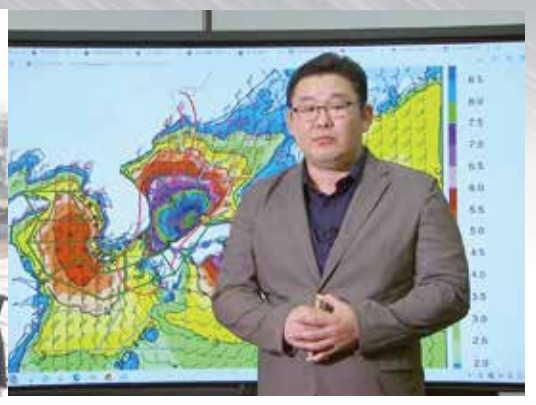
Q 〈전국노래자랑〉 애청자들에게 한 말씀

아직 많이 부족한 일요일의 막내딸, 막둥이 키운다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국노래자랑〉에 일요일의 막내딸을 보러 와주세요~

철저한 사전 준비로 전사적 대응…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역할 빛났다

KBS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5일 오전부터 1TV 정규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고 33시간 10분 연속 재난방송을 실시했다. 이는 KBS는 물론 국내 방송사의 태풍 재난방송 역사에서 가장 긴 연속 생방송이었다. 이어 9월 18일 부산, 울산, 포항 등 영남 해안이 직접 영향권에 들었던 태풍 '난마돌' 재난방송 또한 전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KBS는 보도본부 재난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태풍 '힌남노'의 발생에서부터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강력한 위력을 지닌 태풍인 탓에 역대급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던 시점에서 KBS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정규 프로그램 중단이었다. 9월 5일 오전 6시부터 과감하게 1TV 정규 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하고 연속 재난방송을 편성했다. 특히 태풍의 강도와 진로를 고려해 'KBS 재난방송 매뉴얼' 기준(태풍 상륙 9시간 전)을 14시간 앞당겨(태풍 상륙 22시간 50분 전) 선제적으로 연속 생방송을 시작한 것이다. 연속방송에 앞서 실시한 뉴스특보 역시 'KBS 재난방송 매뉴얼' 기준(태풍 상륙 18시간 전)보다 20시간 앞당겨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태풍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다.

또한 지역총국 자체특보와 거점특보를 적극 실시하고, 본사 인력을 지역총국(제주총국, 광주총국, 대구총국)에 파견한데 이어, 9월 5일 오후 4시 뉴스특보 중에는 긴급대담도 제작해 방송했다.

KBS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타 방송사와 차별화된 완성도 높은 재난방송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태풍 '힌남노' 피해 예방과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유형별 예상 피해와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방송했는데 자료화면 사용을 최소화하고 KBS만의 생생한 현장영상(재난감시 CCTV, 제보영상, ENG 촬영영상) 위주로 사용해 정확한 정보 전달에 충실했다. 본사 네트워크부와 지역총국의 협업으로 현장을 직접 취재하는 기자를 연결해 해당 지역의 세부 정보와 대비 상황, 행동 요령 등도 자세히 전달했다. 기상·재난 전문가들을 방송에 적극 참여시켜 예상되는 피해와 대처 방법 등 전문적인 정보를 통해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KBS 재난통신원과 풀뿌리K 프로젝트 지역 공동체라디오를 적극 활용한 점도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I·N·T·E·R·V·I·E·W

원종진 재난미디어센터장으로부터 이번 재난방송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재난방송 고도화에 최선 다할 것"

Q 33시간 10분 연속 재난방송을 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굉장히 긴 재난방송이었다. 태풍은 9월 6일 새벽 4시 50분에 상륙했다. 그보다 22시간 50분 전인 9월 5일 아침 6시에 연속 재난방송을 시작했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난방송이었다. 피해 최소화가 목적이었다. 고생한 본사와 지역총국 모든 분께 감사하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양적, 질적 측면에서 차별화된 재난방송을 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포항에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기자와 재난통신원, 재난전문가, 재난당국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음을 느낀다. 사전에 더 세심하게 피해 가능성을 예상하고 재난방송을 했다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했다.

Q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결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태풍 '힌남노'는 매우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강력한 태풍이다.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돼 큰 피해가 예상됐다. 당초 재난방송 계획을 수립하면서 태풍의 상륙 시간과 〈KBS 재난방송 매뉴얼〉을 고려해 연속 재난방송은 9월 5일 밤 10시부터 시작하는 걸 검토했다. 하지만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재난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9월 4일 오후에 9월 5일 아침 6시부터 태풍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때까지 연속 재난방송을 하자고 건의했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재난미디어센터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끝난 뒤 곧바로 태풍 재난방송의 형식과 내용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장시간 재난방송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Q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KBS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우선 탄탄한 전국 네트워크와 지역총국의 재난방송 역량이다. 이번 태풍 '힌남노' 재난방송도 전국 방송과 지역 방송이 입체적으로 실시됐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든 제주, 창원, 부산, 대구총국을 비롯한 모든 총국에서 자체 뉴스특보를 수시로 방송했다. 지역 집중 재난방송 방식인 본사 〈거점 총국〉 뉴스특보에도 제주, 창원, 부산, 대구총국이 8회 참여했다. 총국들은 자체 뉴스특보와 거점 총국 뉴스특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재난 정보와 대비 방법 등을 이전보다 상세히 전달했다. 창원총국 자체 뉴스특보 시청률은 28.8%까지 기록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다음으로 국내 유일의 재난방송 전담 조직이다. 재난미디어센터는 지난해 국장급 센터로 격상돼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마라도 해역 지진〉, 올해 봄 〈울진·삼척 대형 산불〉, 올해 여름 〈중부지역 기록적 폭우〉 등을 거치며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해왔다. 재난감시CCTV, GIS 재해위험지구, 재난그래픽 자동표출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고도화된 시스템, 전국 네트워크의 결합은 KBS만의 강점이다.



원종진
KBS 재난미디어센터장

Q 그동안 태풍 재난방송은 어떻게 준비했나?

태풍은 돌발성 재난과 다르다.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상 일찍 재난방송을 시작하고 연속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2020년 태풍 '마이삭' 이후 연속 재난방송을 한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대비가 필요했다. 재난미디어센터는 태풍 '힌남노'가 발생하기 전인 8월 하순부터 올해 태풍 대비 연속 재난방송을 준비했다. 보도본부 내 TF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8월 24일, 8월 29일)를 거쳐 〈2022년 태풍 대비 재난방송 개선 계획〉을 만들었고, 9월 1일 시행문으로 전사에 공지했다. 33시간 10분 연속 재난방송은 이런 사전 준비와 전사적 협업의 결과다.

Q 향후 재난방송 계획은?

"고생 많았다"는 격려도 있고 평가도 나쁘지 않아 고생한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재난미디어센터 눈으로 냉정히 보면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참 많다. 재난방송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는 주로 사후에 피해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다. 지금 국민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요구와 감수성은 더 높아졌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 미리 예상되는 피해를 알려 대비토록 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원하고 있다. 재난방송을 하다보면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왜 뉴스특보를 하느냐?"는 질문도 받는데, 비가 내릴 때 시작하는 재난방송은 한참 늦은 재난방송이다. 피해 예방의 관점에서 선제적 재난방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선 '힌남노'와 '난마돌' 태풍 재난방송을 평가해 부족했던 점을 찾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태풍 재난방송 매뉴얼을 정교하게 만들어 볼 생각이다. 또 지진에 대비한 재난방송 계획 수립도 준비 중이다.

성큼 다가온 가을…
KBS가 선보이는 새 프로그램



태풍같은 복수가 몰아친다
〈태풍의 신부〉

〈황금가면〉 후속으로 10월 10일 첫 방송되는 〈태풍의 신부〉는 본인의 정체를 숨긴 채 친부를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의 며느리가 되어 처절한 복수를 펼치는 한 여자의 이야기이다.

〈신사와 아가씨〉, 〈위험한 약속〉 등에서 선과 악을 넘나드는 명품 연기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은 박하나가 친부모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복수에 나서는 은서연으로 분해 다채로운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은서연의 부친을 죽음으로 내몬 강백산 역은 손창민,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마음속에는 거친 태풍이 이는 강백산의 아들 강태풍 역은 강지섭, 은서연의 곁을 지키는 다정다감하고 젠틀한 남자 윤산들 역은 박윤재가 맡아 연기한다. 여기에 은서연의 모친 정모연 역에는 지수원, 강백산의 부인 남인순 역에 최수린 등 중견 베테랑 배우들이 총출동해 각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풍의 신부〉는 〈빨강구두〉, 〈꽃길만 걸어요〉 등을 통해 디테일한 연출력을 선보여온 박기현 PD와 〈여자의 비밀〉, 〈미쓰 아줌마〉 등을 집필한 송정림 작가가 의기투합하여 선보인 작품. 박기현 PD는 "탄탄한 내공을 지닌 베테랑 배우들과 청춘의 패기가 넘치는 젊은 배우들의 연기가 어우러지며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첫 방송 10월 10일(월) /
매주 월~금 저녁 7시 50분 KBS2





당찬 싱글맘 며느리에게 찾아온 두 번째 사랑
〈내 눈에 콩깍지〉

〈으라차차 내 인생〉 후속으로 지난 3일 첫 방송된 〈내 눈에 콩깍지〉(이하 콩깍지)는 사고로 남편을 잃고 딸 아이를 키우며 당차게 살아가는 싱글맘 이영이(배누리 분)가 남편의 각막을 이식 받고 새 삶을 살게 된 재벌 3세 장경준(백성현 분)을 만나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둘이 펼쳐가는 순애보다.

여주인공 이영이 역은 〈바람피면 죽는다〉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인 배누리가, 순정남 재벌 3세 장경준 역은 〈보이스〉에서 냉철한 형사 연기를 선보인 백성현이 맡았다. 장경준의 약혼녀 김해미 역은 최윤라가 맡아 배누리와 팽팽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가족들 사이 갈등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장경준의 배다른 동생 장세준 역은 정수환이 연기한다. 또한 이영이의 시어머니 오은숙 역은 박순천이 맡아 며느리를 모질게 대하고 자식들에게 집착하는 복합적인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차달래 부인의 사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을 연출한 고영탁 PD가 연출을 맡았고, 〈꽃길만 걸어요〉 등을 집필한 나승현 작가가 극본을 썼다.

▶ 매주 월~금 저녁 8시 30분 KBS1



세상에 없던 여행 대결… 당신의 선택은?
〈배틀트립 시즌2〉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충족시키는 알뜰한 여행 설계로 국민 여행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했던 〈배틀트립〉이 코로나19로 인한 2년 6개월간의 공백을 깨고 시즌 2로 돌아온다. 〈배틀트립〉은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40여 개국 120여 개 도시의 다양한 여행 정보와 꿀팁을 소개하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시즌1의 메인 MC였던 가수 성시경이 다시 진행을 맡았으며, 여기에 개그맨 허경환과 이용진, 그리고 걸그룹 러블리즈 출신 이미주가 가세해 뛰어난 입담의 진행 솜씨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10월 15일 첫 방송에서는 연예인 출연자들이 팀을 나누어 최근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꼽힌 두 곳을 선정해 아름다운 풍경과 맛집 등을 소개하고 알차게 둘러보는 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여행 욕구를 채워줄 해외 여행지의 알찬 정보들과 다채로운 재미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본방사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 첫 방송 10월 15일(토) / 매주 토요일 밤 10시 35분 KBS2

휴먼드라마와 로맨틱 코미디의 만남… 〈법대로 사랑하라〉


정덕현
문화평론가

바야흐로 법정 드라마 전성시대다. 그런데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오고 대중적인 호응도 큰 이유는 뭘까. 그건 법만큼 드라마틱한 이야기 거리가 많은 분야가 없고, 무엇보다 서민들이 느끼는 법에 대한 정서가 그리 좋지만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판결 중에는 서민들이 공감하기 힘든 것들도 적지 않다. '무죄'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히고, '유죄'가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하거나 힘이 없어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히는 시대다. 그러니 적어도 드라마에서만큼은 법이 진짜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는 속 시원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겠는가.

KBS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도 바로 그런 법의 모습을 보여주는 김유리(이세영)라는 변호사를 내세웠다. 대형로펌을 다녔지만 시종일관 돈 안 되는 공익소송만 해온 변호사다. 심지어 로펌과 계약 관계인 회사의 노동자 편에 서서 싸우는 이 변호사는 결국 로펌을 나와 엉뚱하게도 카페를 차린다. 이름하여 '로(Law)카페'. 사주를 봐주는 사주카페가 있듯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카페가 바로 '로카페'다.

황당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과거 노동 현장에서 사고를 겪은 아버지가 법정에서 하루아침에 파렴치범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김유리는 무고한 약자들이 법정에서 당하는 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라는 걸 깨달은 것. 알다시피 법이 강자들의 편이라고 하는 건, 그 절차와 비용과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이들이 결국 승자가 되는 현실 때문이다. 김유리는 그래서 법정으로 가기 전에 법원 바깥에서 이런 문제들을 서민들 가까이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려 한다.

로카페를 차리고 김유리가 맡은 첫 번째 사건(?)은 그래서 '층간소음' 분쟁이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누군가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 죽을 마음까지 먹게 되지만 놀랍게도 주민들 중에는 이 소음의 가해자가 없다. 윗층에 아무도 살지 않는데 쿵쿵 울리는 소리는 결국 애초 아파트를 지을 때 방음이 될 만큼의 충분한 바닥재를 쓰지 않고 원가절감만 하려 한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유리는 이 사안이 법정으로 가게 되면 승소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들고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된다. 하지만 김유리의 옛 남자친구이자 그가 세 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인 김정호(이승기)는 법정으로 가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묘안을 내놓는다. 층간소음 문제를 SNS를 통해 이슈화함으로써 마침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던 건설사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 이처럼 〈법대로 사랑하라〉는 실생활에 밀착된 이슈들을 굳이 법정으로까지 가져가지 않고 법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최근 들어 법정 드라마가 다루는 사건들은 거대 담론만이 아닌 소소한 사건들로 옮겨가고 있다. 그것은 실제로 서민들이 겪을 수도 있는 사건들이 더 피부에 와 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법대로 사랑하라〉는 이러한 서민들의 일상에 맞닿은 법 관련 사안들을 김유리라는 인물이 가진 휴머니즘의 시각으로 다룬다. 물론 옛 연인이었다가 이제 건물주와 세입자 위치로 다시 만나 다시 사랑을 키워가는 김정호와 김유리의 로맨틱 코미디도 빼놓을 수 없다. 따뜻한 휴먼드라마와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가 주는 훈훈함과 설렘. 그것이 〈법대로 사랑하라〉가 시청자들을 잡아끄는 힘이다. 물론 과거 김유리와 관련된 김정호의 어떤 비밀이 의외의 한 방을 숨기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과 K-드라마의 확장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장

〈오징어 게임〉이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아쉽게도 작품상은 놓쳤지만,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주연배우 이정재 씨가 남우주연상을 받으면서 비영어 드라마로서 최초 수상이라는 빅이슈가 탄생했다. 2021년 9월 1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동영상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에서 53일 동안 1위를 하여 '최장 1위' 기록을 세웠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이 94개국에서 1위를 했고, 공개 후 28일 동안 총가입자의 66%인 1억 4,200만 명이 시청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제79회 골든글로브에서 오영수 배우가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고, 제28회 미국 배우조합상에서는 이정재, 정호연 배우가 남녀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에미상에서도 메이저에서 7개 부문 등 14개 부문에서 후보로 올랐다. 이런 성과로 인해 작품상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지만, 최종 결과는 메이저에서 2개 부문, 비메이저에서 4개 부문(여우 게스트상, 현대극 미술상, 싱글에피소드 특수시각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수상이었다.

K-드라마 확장에 대한 넷플릭스의 기여

K-드라마의 인기는 1990년 후반부터 대만, 중국 등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03년 〈겨울연가〉를 통해 일본 시장이 열렸고, 2017년 리메이크된 〈굿닥터〉(10월 3일 시즌6 첫 방송)가 사실상 미국 시장을 열었다. 2021년에는 〈오징어 게임〉이 마침내 미국 등 전 세계를 강타했다. 그런 면에서 넷플릭스는 K-드라마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한 것은 2016년 1월. 초기에는 별다른 반향이 없었지만 2019년 〈킹덤〉이 공개되면서부터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킹덤〉은 2020년 〈스위트홈〉, 2022년 〈지금 우리 학교는〉과 함께 K-좀비 신드롬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K-드라마의 위상을 한껏 높여 놓은 작품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다. 구독자 수에서 세계 최상위권인 미국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는 실사판 〈오징어 게임〉을 개최해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 공개 2주 만에 조회 수가 1억 5천만을 넘어설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정재 배우는 루카스 필름이 제작하는 디즈니+의 스타워즈 시리즈 〈어콜라이트(The Acolyte)〉 주인공으로 캐스팅까지 됐다.

K-드라마가 지속 확장하려면

미국은 콘텐츠 비즈니스의 메카이다. 미국에서 성공하면 그 효과는 전 세계로 이어진다. 〈굿닥터〉가 미국에서 성공하자 일본과 태국에서의 리메이크가 이어졌고, 〈복면가왕〉도 리메이크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한동안 K-드라마는 문화 장벽 때문에 직접 진출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다. 그 한계를 '1인치 자막'이 넘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첫째, IP(지식재산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후지와 코닥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후지는 다시 살아나고, 코닥은 파산했다. 후지가 그동안 보유한 필름에 사용되는 콜라겐 특허를 활용하여 화장품 등 전혀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서 살아난 것처럼, 방송사는 오랫동안 쌓아온 막대한 IP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고전이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만의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작해야 한다. 대표적인 작품이 KBS의 〈동백꽃 필 무렵〉과 ENA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다. 넷플릭스만큼의 막대한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다. 대체로 제작비를 많이 들이면 성공한다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셋째, 해외와의 협력과 합작이다. K-드라마의 인기와 제작역량 때문에 해외에서 러브콜이 많다. 이런 시기에 CJ ENM은 미국 스튜디오 엔데버 콘텐츠를 인수했고, JTBC는 미국 스튜디오 wiip을 인수해 헐리우드에서 공격적으로 드라마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KBS도 KBS America를 전진기지 삼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콘텐츠 비즈니스를 추진해야 한다.

〈오징어 게임〉은 쉽게 깨지지 않을 기록을 만들었다. 항상 처음은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하다지만 〈오징어 게임〉을 이을 작품들은 그냥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가 한 연설을 가슴에 새긴다면 새로운 기록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Stay hungry, stay foolish(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

지역 시청자위원이 말한다

KBS 충주방송국

KBS의 진정한 언론 신뢰도 1위를 꿈꾸며


안상윤
충주방송국 시청자위원 / 포커스컨설팅 대표

KBS 충주방송국의 시청자위원이 되면서 이전보다 공중파 방송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로 뉴스를 포함한 보도와 시사프로그램 그리고 다큐멘터리 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매 방송 챙겨보려고 애쓰고 있다. 충주방송국장님의 주도로 만들어진 단체 대화방을 통해 KBS와 관련된 소식이나 프로그램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으며, 특별 프로그램이나 지역 현안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얼마 전 미디어 신뢰도 조사에서 KBS가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시청자 위원 모두가 축하와 격려의 말들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점들이 생겨났다. 'KBS는 언제부터 신뢰도 1위를 차지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를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있을까?',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면 어떤 의견들일까?' 등등의 다양한 궁금증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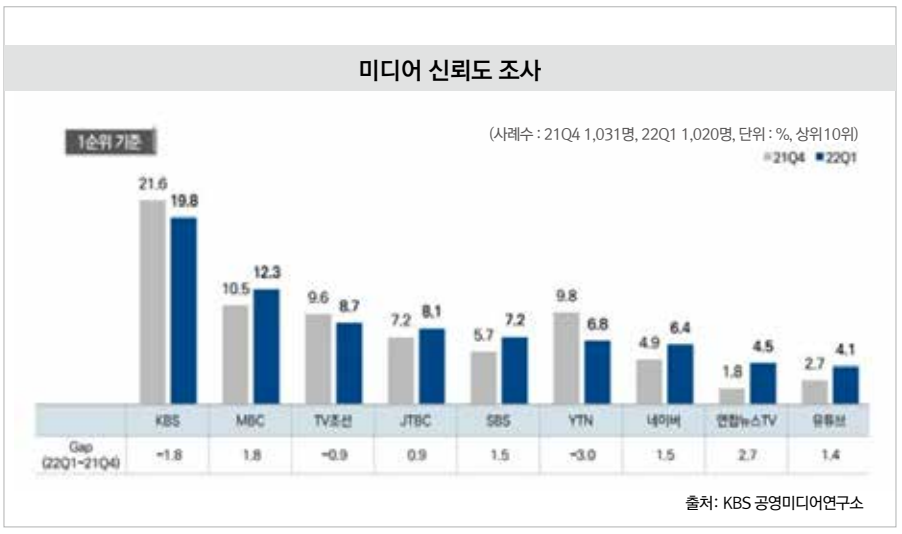
KBS가 2018년 12월부터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미디어 신뢰도 조사' 결과를 전 분기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1% 상승한 것에 반해 KBS의 신뢰도는 1.3% 상승했고 KBS뉴스에 대한 신뢰도 역시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항목에서 19.8%를 기록한 KBS는 2위인 MBC의 12.3%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가장 신뢰하는 방송사 조사에서도 KBS 22.2%, MBC는 14.9%로 나타났다. 방송사 뉴스 신뢰도 부문에서도 KBS는 23.2%로 1위를 MBC가 14.5%로, YTN이 13.2%를 나타냈다. KBS에 대한 방송사 선호도는 같은 기간 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선호도와 신뢰도의 다른 결과를 나름대로 해석해 보자면 신뢰하지만 선호하지 않는 것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믿는다는 것이다. 나와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거나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KBS에서 나오는 방송과 보도는 믿을 수는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정치를 예로 들어보면, 보수 진영에서도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적인 소리를 듣고 있다면 어쩌면 이 상황을 칭찬으로 해석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보도라면 감사와 칭찬을 듣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신뢰를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의미 없는 칭찬보다는 비판과 쓴소리에 더욱 익숙해지고 신뢰도는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KBS를 기대하게 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2년 3월 시행한 신뢰도 조사에서 미국 공영방송 PBS는 신뢰도 조사에서 기상정보 전문 유료 TV 채널인 웨더채널과 BBC에 이어 3위를 기록하여 많은 미국인의 우려를 낳았다. 상대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BBC는 무엇인가 불필요한 것을 추가하는 것 대신에 추측성 보도를 삼가고, 근거가 약한 다른 언론 기사를 인용하지 않는 언론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이유였다. 여기에 시청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추가적인 신뢰의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신뢰는 한순간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믿음을 줄 때 쌓일 수 있다. KBS 충주방송국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기는 라디오 충주〉, 〈생방송 충청은 지금〉, 〈계명산의 아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해서 지역의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내가 사는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창구 기능을 하고 있다. 시청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중단한 일부 지역의 경우처럼 당장은 조회 수나 댓글 등의 반응이 많지 않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방송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꾸준히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쌓여 더 높은 신뢰도도 얻기를 기대한다.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영방송 KBS가 높은 신뢰도를 갖는 최고의 언론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시청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출처: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아시나요? 보석 같은 지역 프로그램

KBS 광주방송총국

출발 무등의 아침



〈출발 무등의 아침〉은 평일 출근 시간 광주와 전남의 시사 현안과 정보를 깊이있게 전달하는 라디오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1996년 첫 방송을 시작한 뒤 26년을 이어온 광주방송총국의 장수 프로그램으로 현재 진행은 전 광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인 정길훈 기자가 맡았다.

〈출발 무등의 아침〉은 지역은 물론 전국적 이슈와 관련된 인물을 섭외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였던 만큼 여야 당 대표, 선대위원장 등과의 인터뷰를 잇따라 성사시켰고, 이 내용을 타 언론에서 인용 보도하는 횟수 또한 눈에 띄게 늘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건축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전면 철거와 재시공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인물 인터뷰 외에 '오승용의 안구정화', '김여울의 스포츠 소식', '스토리로 듣는 남도역사', '리포터 현장취재' 등 요일별 고정 코너를 통해 정치와 스포츠, 역사, 사회 현안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지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도 특색이다.

특히 올해 〈출발 무등의 아침〉은 라디오 가청권인 광주전남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디지털 기사를 작성해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에 전송하고 있다. 광주방송총국 자체적으로 연간 조회 수 목표치를 2백만 회로 설정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3백만 회를 돌파했다. 대선 기간인 1월 11일에 작성한 '오승용의 안구정화' 디지털 기사는 1백만 회를 넘기도 했다. 또한 기존 정치 코너와 인물 인터뷰 외에 스포츠 소식, 리포터의 현장 취재까지 디지털 기사 작성 범위를 확대하며 네티즌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작진은 "앞으로도 유튜브 유통 등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의 대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매주 월~금요일 아침 8시 30분 KBS 1Radio

K-POP 스타와 한류 팬이 한 무대에! 〈2022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개최



지구촌 최대 규모의 K-POP 축제 〈2022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이하 월드 페스티벌)이 10월 7일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월드 페스티벌〉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행사는 취소됐고, 2021년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월드 페스티벌〉은 K-POP을 사랑하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팬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전 세계 약 100여 개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이 창원에서 우승을 목표로 최종 승부를 겨루게 된다.

공연 진행은 배우 김명수, 가수 알렉사와 문수아(걸그룹 Billlie 멤버)가 맡았고 브레이브걸스와 CIX, KARD, 이진혁 등이 화려한 축하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월드 페스티벌〉은 10월 7일 오후 7시 유튜브 채널(KBS WORLD TV)에서 생중계되고, 10월 28일에는 2TV에서 방송된다. 또 11월 11일에는 KBS WORLD 채널을 통해 전 세계 140여 개국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3라디오 〈소설극장〉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KBS 3라디오(수도권 104.9㎒) 〈소설극장〉이 9월 21일부터 방송하고 있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가 11월까지 계속된다.

'무기여 잘 있거라'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북부 전선에서 적십자사 구급차를 몰았던 헤밍웨이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과 주인공 프레더릭 헨리와 캐서린 바클리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채널인 3라디오의 〈소설극장〉은 독서가 어려운 시각 장애인은 물론 바쁜 현대인을 위해 국내외 베스트셀러를 선정해 성우들의 연기와 낭독으로 구성된 오디오북을 제작·방송하고 있다.



▶ 매일 오전 11:40~12:00 KBS3Radio

〈서울드라마어워즈 2022〉 시상식 개최

〈서울드라마어워즈 2022〉 시상식이 9월 22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각국 드라마 감독과 작가, 배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위원장 김의철)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시상식을 열고, 대상을 포함해 국제경쟁 부문 및 한류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개인상 등에 대해 시상했다. 영예의 대상은 코로나 팬데믹의 최대 취약처인 요양원을 배경으로 환자와 요양사의 사투와 인간의 생존권을 그려낸 영국 드라마 〈Help〉가 받았다. 한편 국제경쟁 부문 작가상은 KBS에서 방송됐던 사극 〈연모〉의 한희정 작가가 수상했다.



배우 주상욱, 가수 정은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2TV를 통해 120분간 생방송 됐고, 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서울드라마어워즈는 드라마 전문 국제 시상식으로, 17회째인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39개국에서 총 225편의 드라마가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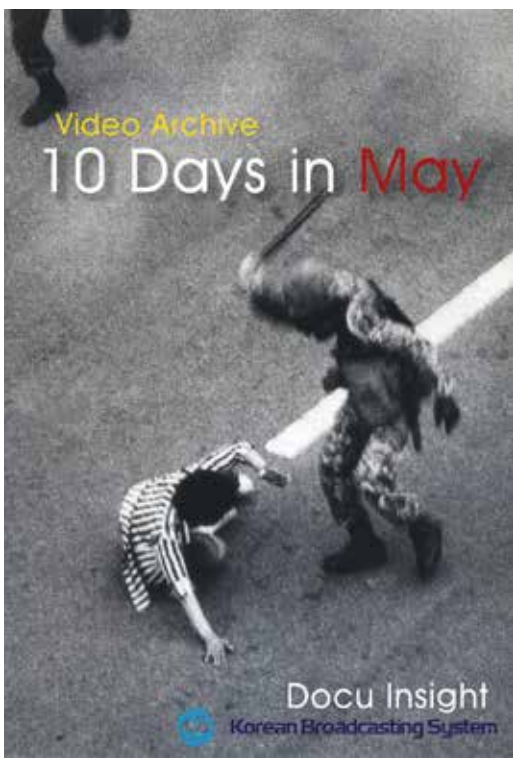
〈제5회 우리말 공인 인증고사〉 디지털 서비스 오픈

KBS가 576돌 한글날을 기념해 〈우리말 공인 인증고사〉 디지털 서비스를 오픈했다.

〈우리말 공인 인증고사〉는 평소 자주 틀리는 한글 맞춤법을 소재로 한 재미있는 퀴즈로 구성돼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말 공인 인증고사〉 참여 후 종합점수 90점 이상을 받아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참여하면 커피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제5회 우리말 공인 인증고사〉는 KBS 누리집(https://urimalgosa.kbs.co.kr)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다큐 인사이트 – 오월의 기록〉 동유럽 '역사필름 페스티벌' 특별상 수상



〈다큐 인사이트-오월의 기록(연출 김형석 PD)〉이 9월 17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역사필름페스티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다큐 인사이트-오월의 기록〉은 KBS가 시청자들에게 공개한 '5·18 민주화운동 아카이브' 서비스 개시에 맞춰 제작·방송됐는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기록된 광주시의 상황을 영상일지 방식으로 볼 수 있어 귀한 사료로 평가받았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역사필름페스티벌'은 역사물 전문 국제페스티벌로 방송다큐멘터리와 독립제작다큐멘터리 부문을 공모해 시상하고 있다.



노은지 기상캐스터의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

가을 단풍

단풍은 추운 겨울을 앞둔 나무의 '생존 전략'입니다. 겨울에 일조량이 줄어들면 잎은 더 이상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데요. 나무의 입장에선 영양분을 만들지도 못하는 나뭇잎을 계속 달고 있는 건, 소득도 없이 식량을 축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겨울을 앞두고 잎으로 가는 물과 영양분을 차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뭇잎에 들어 있던 엽록소가 파괴돼 초록색은 사라지고, 그간 초록색의 엽록소 때문에 보이지 않던 다른 색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풍입니다. 노란색 단풍은 카로티노이드의 색이고요. 붉은색 단풍은 안토시안의 색입니다. 은행나무, 미루나무, 자작나무, 싸리나무 등이 노란색 카로티노이드의 색이 드러나는 나무고, 단풍나무, 담쟁이덩굴, 감나무 등이 붉은색 안토시안의 색이 드러나는 나무입니다. 식물이 왕성하게 성장할 땐 눈에 띄지 않다가 가을이 되면 노란색의 카로티노이드와 붉은색의 안토시안이 제 색깔을 드러내는 거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자 설악산에서 '첫 단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드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설악산 첫 단풍을 시작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단풍이 시작되겠는데요.

단풍은 하루에 25km씩 남쪽으로 내려가고 50m씩 산 아래쪽으로 고도를 낮춥니다. 보통 9월 하순 설악산에서 단풍이 들기 시작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 10월 하순이면 두륜산과 한라산까지 물들이죠. 설악산과 두륜산의 단풍은 약 한 달가량 차이가 납니다. 또 단풍의 절정은 산의 80%가량 단풍으로 물드는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첫 단풍 이후 보름 정도가 지나면 절정에 달한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민간 기상업체 웨더아이는 2022년 단풍은 평년보다 늦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월과 10월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대산과 계룡산, 지리산, 한라산, 내장산 등 유명한 산들의 첫 단풍 소식은 이달 중·하순쯤 들려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산홍엽을 제대로 즐기려면 단풍의 절정기에 찾아야겠죠. 첫 단풍 이후 보름 정도 지난, 이달 하순에서 다음 달 상순이면 단풍으로 온 산이 물든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단풍의 빛깔은 앞으로의 날씨가 좌우합니다. 맑고 일교차가 클수록 단풍의 빛깔은 아름다워집니다. 산의 단풍이 도심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산간 지역의 일교차가 더 크기 때문인데요. 당분간 아침엔 15℃ 안팎으로 선선하고 한낮엔 25℃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올가을 단풍이 점점 더 곱게 물들길 기대해봅니다.





속정 깊은 어머니의 꽉 찬 밥상 '칠보식당'



노중훈 여행작가

전라북도 순창군 읍내에 위치한 칠보식당 어머니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블링블링한 검은색 셔츠에 흰 바지를 입고 흰색 고무신을 꿴 차림. 게다가 머리는 보랏빛이었다. 남다른 패션 감각, 그리고 상대방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분위기 장악력이 있었다. '식사 자리가 편치만은 않겠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섣부른 편견과 선입견은 그날 저녁 산산이, 기분 좋게 부서졌다.

광주광역시 태생의 어머니는 순창이 알아주는 가수다. 〈전국노래자랑〉에 두 번이나 출전해 한 번은 우수상, 한 번은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어머니의 '가창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다. "열일곱 때 친구랑 (전남) 장흥에 있는 어떤 산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데, 오후 공연을 마치고 잠시 쉬러 온 극단 사람들 눈에 띈 거야." 요즘으로 치면 길거리 캐스팅이었다. "기타 치는 친구는 빼고 나만 스카우트됐지. 그 길로 극단에 들어가 지방 공연을 다니게 됐는데, 아버지한테 걸려 두 달 만에 그만뒀어. 진도에서 붙잡혔거든." 어머니의 개인사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결국 발목을 붙잡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인(歌人)의 꿈은 접을 수밖에 없었다. "시대를 잘못 만났지, 뭐." 어머니는 40여 년간 순창의 작은 식당을 지키고 있다.

몇 개 없는 칠보식당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우선 청한 음식은 목살김치찌개. 콩자반, 멸치볶음, 고추장아찌, 고추나물, 무생채, 가지무침, 오이무침 등의 반찬이 깔렸다. 하나하나 정갈했고, 맛이 흐트러짐이 없었다. 지난해 담근 김장 김치와 담근 지 얼마 안 된 김치가 섞인 김치찌개는 맛이 깊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김치가 주는 상이한 식감이 흥미로웠다. 칠보 어머니는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도 직접 사서 푹 끓인 다음 '윗물'과 '아랫물'을 걸러내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김치찌개의 양이 워낙 많았지만 손맛이 빼어나 다른 음식도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메뉴는 생고사리조기탕. 봄에 햇고사리를 1년 치 구입해 냉동 보관하는데, 내일 쓸 양만 전날 미리 해동하고 불려 사용한다. 조기는 생조기가 아니라 섭간한 다음 말린 굴비를 사용해 비린내가 조금도 얼씬거리지 않는다. 시원하고 또 시원해서 숟가락이 연신 국물을 입속으로 퍼 날랐다.

두 번째 식당을 찾았을 때는 어머니가 먼저 메뉴판에 없는 메뉴를 제안했다. "오리탕에 밥 먹을래? 아님 김칫국 끓여줄까?", "저는 항정살애호박찌개가 먹고 싶어요.", "그럼, 조금만 끓여줄까?"

분명 '조금만'이라고 했는데 실제 나온 찌개는 서너 명이 달려들어 먹어도 될 만큼 푸짐했다. 돼지고기가 그야말로 무더기로 쏟아졌다. 애호박찌개의 국물이 달큼했고, 어머니 인정도 달큼했다. 혼자 받는 밥상인데 반찬은 또 어찌나 많은지. 다 꺼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무려 여덟 가지나 내어 주셨다. 직접 만든 편육을 위시해 갈치속젓과 밴댕이젓을 섞은 젓갈, 감자채볶음, 겉절이김치, 총각김치, 깻잎장아찌, 멸치볶음, 찐 양배추까지. 갓 지은 밥 두 공기가 눈앞에서 이내 사라졌다. 더할 나위 없는 왕후의 밥과 왕후의 찬이었다.



·주소: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13-6
·전화번호: 063-653-6770
·메뉴: 목살김치찌개, 생고사리조기탕, 갈치감자탕



불량 검사 액션 수사극

〈진검승부〉는 정법보다는 편법을, 정석보다는 꼼수를, 성실함보다는 불량함을 택한 검사가 부와 권력이 만든 성역과 악의 무리들을 시원하게 깨부수는 액션 수사극으로, 답답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할 통쾌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괜찮아 사랑이야〉, 〈백일의 낭군님〉 등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그룹 엑소의 도경수는 전역 후 복귀작인 〈진검승부〉에서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이단아이자 똘기충만한 '꼴통 검사' 진정 역으로 연기 변신에 도전한다.

〈신사와 아가씨〉에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2021 KBS 연기대상 여자 신인상'을 수상한 이세희는 냉철한 상황 판단력을 지닌 중앙지검 형사부 선임 검사 신아라 역을, 〈범죄도시〉에서 화끈한 액션을 선보였던 하준은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출세의 욕망이 꿈틀대는 '야망 검사' 오도환 역을 맡았다.

〈진검승부〉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엄마의 공책〉,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의 김성호 감독이 연출을, 〈스케치〉에서 탄탄한 필력을 선보인 임영빈 작가가 집필을 맡았다.

▶ 첫 방송 10월 5일 / 매주 수~목요일 밤 9시 50분 KBS2

등장인물 소개



도경수 (진정 역)

한눈에 시선을 끄는 외모와 쾌활한 미소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만만, 여유만만한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지만 검사 같지 않은 행동으로 검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단아이자 또라이로 불린다. 하지만 깊은 정의감과 양심을 지닌 진짜 검사로서,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이세희 (신아라 역)

깔끔한 일처리가 돋보이는 중앙지검 형사부 선임검사로, 정치적 감각 또한 뛰어나 동료나 선후배, 검찰 간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 생태계 교란종'인 진정과는 태생적으로 결이 안 맞지만, 막상 진정이 사고를 쳤을 때 누구보다 걱정하고 챙겨준다.



하준 (오도환 역)

극중 진정과 나이는 같지만 기수로는 선배인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22살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엘리트로 돈과 권력이 최고라고 여긴다. 진정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의를 이루려는 캐릭터라면, 오도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출세하고 싶어하는 캐릭터다.

KBS사보 www.kbs.co.kr

발행인 김의철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113, 2821 / kbssabo@kbs.co.kr
편집인 최영철 **취재** 안현기 기현정 최재영 김희경 **사진** 이민규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김채원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